

지역 매아리



부안소방서,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은 개정된 심폐소생술 지침 교육에 따라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했다.

부안소방서는 2016년 개정된 심폐소생술 내용을 직무활동에 반영하여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섰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심폐소생술 시 호흡은 하지 않고 흉부 압박만 한다.

더없이 현자 시대로 추진되고 있는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와 소방차의 합동 출동 시스템인 펌블런스제도에서 일반 환자진압 대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번 교육은 필수적이었다.

조종실 방호 구조과장은 “끊임없는 직무학습과 연찬은 개인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군민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소방공무원의 필수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 직무관련 교육을 매월 시행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내 학습포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경찰서, 바른 조직문화
조성 위한 현장 '특' 시간 가져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이 청렴동아리 회원들과 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특' 시간을 가졌다.

조직의 구성원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공사생활 활동에 있어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청렴동아리 동료간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줌으로서 의무반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개최하였다.

직원들은 “절친한 청렴동아리 동료뿐만 아니라 직원간 소통하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민의 해결책을 찾은 경우가 많다며 직원간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수 고창서장은 “직원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관심과 배려하는 참된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복분자음' 최고의 명품주 등극

배상면주가 고창LB 우리술 품평회 '과실주 부문' 전국 대상 수상

고창(농)배상면주가 고창LB 주식회사(대표 안재식)의 과실주인 '복분자음'이 2017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위해 품질향상 및 경쟁력촉진, 명품주 선발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국내 주류전문가, 소믈리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맛·향·색상, 후미 등 제품심사를 통해 지역의 명품주를 발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국가 공인 경진이다.

특히 수상대상을 지난해 32개소에서 올해는 15개소로 축소하면서 더욱 엄격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우리술 한 점 한 점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수상업체에는 각각 대통령상 1500만 원,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리술 대축제 등 홍보행사 참가비 지원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련 정책사업 등에 우선 혜택

이 주어진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농)배상면주가 고창LB 주식회사의 과실주인 '복분자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 칠산 앞바다의 해물을 맞고 자란 최상급 복분자를 최고의 기술로 최적의 환경에서 발효 숙성시켜 빛어낸 술로, 복분자지의 달콤하면서 풍부한 향과 함께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벌런스가 뛰어난 한국의 대표 전통주다.

'복분자음'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2012년과 2014년에 최우수상을 받으며 그 우수성과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최고의 명품주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이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은 복분자의 주산지로 이를 8차산업화하면서 생산·가공·유통관련 등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생산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게 지원



/고창=김영식기자

'꿈나무들의 재능 마음껏 펼쳤다'

정읍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료… 15개팀 참여 '인터페이스' 대상

정읍시 청소년 어울림 마지막 마당이 지난 18일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 속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Jump up! 청소년 동아리 Festival'로 진행됐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주제로 펼쳐진 행사는 경연대회와 체험활동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15개 팀이 참여한 경연대회에는 끼와 재능을 가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그 결과 모두 10팀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인터페이스(연합)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II(동조)와 비트(화신종)가, 우수상은 D.A.B(정읍고)와 나르사(정일여중), 지킬(서영여고) 등이 수상했다.

심사 관계자는 “학생들의 개성과 끼가 잘 표현된 무대였으며, 학장 시절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현장에서는 청소년 관련 캠페인과 체험활동도 진행됐고 다양한 먹을거리와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올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지난 4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꿈꾸고 꿈잡고'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다른 주제로

진행됐고, 5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끼와 재능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주체가 되어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생기 정읍시장, 현안사업 추진 예산 반영 협조 당부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를 가운데 김생기 시장이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시장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17일, 청와대와 국회 예결 소위를 방문했다.

김 시장은 “예산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16일, 김시장은 경기도 인양시 소재 정읍 장학수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현황 등을 괘의한 후 “임사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대표음식전문점·맛집 추가업소 지정증 수여

정읍시는 20일 시장실에서 올해 추가로 지정된 대표음식전문점 1개소와 정읍맛집 10개소에 지정증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대표음식전문점 2개소와 정읍맛집 10개소를 포함해 대표음식점은 3개소로 정읍맛집은 17개소로 늘어났다.

수여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정된 업소 영업주를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읍 대표음식문화조성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시는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사업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연구 용역 일환으로 지난 9월 이들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정읍=김대환기자

행정·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안군, 민원제도개선 분야 행안부장관상 수상

부안군이 생활불편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함으로써 월드컵으로 윤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17년 국민생활 밀접 행정·민원제도개선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복지 시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고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정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능동적인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침^갓을 느껴보세요.

오늘은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끔함을 한별 솔로 빛았습니다. 부안의 벼사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침뽕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